

발전기금 모금 활발히 전개

박관호 교수 5억기부 등 ...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

'건학 100주년, D-1000일' 행사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1백만등 달기 운동이 시작된 이후 본교 발전기금 모금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8월 12일부터 시작된 1백만등 달기 운동은 현재(9월 22일 기준) 총 1만 2천 391개의 등등이 모여 약 12억원이 모금됐으며 이 밖에 불교병원 기금과 동국발전기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발전기금팀의 한 관계자는 "건학 1백주년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세워짐에 따라 기부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지난 1일 대외협력담당관 2명을 새로 구성하고 외부 기부금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본교는 교직원 등 학

내 구성원이 전체 기부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부 기부자 유치가 소극적이었다.

또한 앞으로 단발적인 행사중심으로 모금하기보다 불교병원 투여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계의 지원을 늘리고, 학과 단위 동창회 등을 직접 방문해 동문들의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인들로 구성된 13명의 명예위원을 지역별로 조직화해 폭넓은 기부자 유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관호 교수 장학기금 전달

본교 명예교수로 재직중인 박관호(화학)교수가 지난 17일 연구·장학기금으로 사재 5억원을 기부했다.

박 교수는 지난 1958년부터 31년간 본교에 재직했으며 '무기화학', '일반화학실험법' 등의 저서를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교수는 "이 공계기피 현상으로 교육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후학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학교측은 이 기탁금을 '박관호 교수 연구장학기금'으로 정하고 매년 기초 과학분야 석·박사과정 연구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발전기금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박교수의 기탁이 구성원들의 모범이 돼 앞으로 학내 모금활동이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부 dmz@donggu.ac.kr

교육·연구환경 개선 필요

결과분석 통해 장기적인 투자계획 세워야

■ 중앙일보 대학평가 분석

지난 23일 중앙일보가 발표한 '2003년 전국대학 평가' 결과 본교가 종합순위 30위로 지난해보다 5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중앙일보사가 자체 실시한 것으로 종합·계열·학문분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교육여건·재정 △교수연구 △경관도 △개선도 등 세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 대해 일부에서는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박용(상명대) 한국대학교육원 소장은 "대학 규모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교과과정·강의내용 등 '질'보다 '양'으로만 평가해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 본교는 연구·영화관련 학과가 2위를 기록했으나 대부분의 순위에서 20위권 내에 들지 못하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이와 관련해 이영환(경제대) 기획인사처장은 "평가 과정이 불투명한 만큼 신뢰도가 높지 않다"

라며 "그동안 교육·연구의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평가는 교육여건·재정과 교수연구 부문이 전체 평가 기준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 중 본교는 교육여건 부문이 △교수 당 학생 수 △기숙사 수용률 등의 평가로 이뤄져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했음에도 재정적 지원이 거의 정무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인사처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순위가 계속 하락했지만 대책을 세우기보다 중앙일보 평가 결과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다"며 "불교병원 건립으로 교육환경 개선 투자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의 논문 게재 수 △교수 연구실적 등에 따라 평가한 교수연구 부문에서도 대부분 순위권 내에 들지 못해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염준근(통계학) 교수회

장은 "부끄러운 결과"라며 "앞으로 교수들이 분발하고, 낙후된 공간과 시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양대·고려대의 경우 교육여건에서는 각각 17, 19위를 차지했으나 교수연구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학교측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취약한 부분을 파악한 후 교육·연구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환 기획인사처장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앙일보 평가는 대외적인 이미지와 함께 신입생 선발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교는 이번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발전계획안을 수립해 오는 2005년 대학교육협의회의 평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ac.kr

한국어학당, 봉사자 모집 문화체험·학습도움 등 활동

언어연구교육원(원장=봉일원·독일학)이 한국어학당 수강생의 학습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자는 일주일에 최소 한시간 이상 한국어학당 수강생의 예·복습을 도와주고 교내·외 문화체험 등을 함께 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오는 12월 12일 까지이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언어연구교육원의 특강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언어연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다음달 4일까지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언어연구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외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도, 모범이용·봉사자 선정 장현종 외 6명

중앙도서관(관장=최인숙)철학, 이하 중도)이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모범이용상과 모범봉사상을 시상했다.

모범이용상을 지난 한 학기동안 전공도서 등의 대출을 가장 많이 한 학생으로 장현종(불교3) △이재훈(사4) △노승재(화공2) 군이다.

또한 중도에서 일하는 근로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봉사상은 △정아림(중문4) △우승운(영문3) △임경옥(국제통상4) △장현진(국교2) 양이 선정됐다.

시상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총장실에서 열렸으며 상패와 도서상품권 10만원권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이 날 시상식에서 홍기삼(국어국문학) 총장은 "최근 대학의 연구 활동이 부진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학문에 정진하는 대학생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해피해 학생 접수 연장 오는 30일까지 교학과

수해피해 학생 접수가 학생들의 신청 저조로 오는 30일까지 연장된다.

신청은 △피해상황 신고서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읍·면·동사무장이 발급한 풍수해 피해 사실 확인서 1부 △보호자 및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재산세 과세 증명서 1부를 소속 대학교학부에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은 접수 마감 후 신청 인원 등을 고려해 장학금 지급·다음학기 근로장학생 신청서 우선 선발 등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불교전문대학원 설립불허 "국가정책 방향과 달라"

교육인적자원부가 불교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국가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대학원만 신설한다는 방침에 따라 허가하지 않았다.

본교는 불교학의 특성화를 위해 불교전문대학원 설립 신청서를 지난 7월 제출한 바 있다.



반전의 한 목소리 ...

'국제반전공동행동' 행사가 지난 27일 대학로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스피커의 이라크 점령 반대, 한국 전투병 파병 반대 등을 외쳤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ac.kr

① '교육' 발전 방향 제시 ② 물적 환경

'동국비전21' 현실화 방안 모색

오는 11월 기관업적평가 활성화 방안 등 확정

본교가 지난 2001년 발전방안으로 수립한 '동국비전21'을 보완하고자 '업그레이드 동국비전21'을 준비하고 있다.

'동국비전21'은 교육·연구·행정·재정분야로 나뉘 △특성화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디지털 온라인교육을 통한 세계적인 대학 △국내 상위 5위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기관업적평가의 내용이 어렵고 보상·징계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화 되는 등 실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본교 기획인사처는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연구·행정·재정분야에 대한 중장기적인 목표 △기관업적평가 활성화 방안 △대학종합평가에 대한 계획 등을 오는 11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구·행정·재정분야에 대한 중장기적인 목표 △기관업적평가 활성화 방안 △대학종합평가에 대한 계획 등을 오는 11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저서번역연구비 접수 지원원수 3편 늘어

연구개발팀이 저서번역연구비 접수를 다음 달 9일까지 받는다.

연구처(처장=여인형·화학)는 이번부터 교수들의 연구비 혜택을 늘리기 위해 지원 원수를 9편에서 12편으로 늘렸으며, 개인 업적과 연구 계획서 등을 심사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오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총장·학생회 간담회

홍기삼(국어국문학) 총장과 학생대표자의 간담회가 내일(30일) 오후 2시 총장실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총학생회(회장=유영민·경영4)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불교병원 개원 준비 현황 △등록금 정책협의회(이하 등학협) 구성 △한도서관 공간배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선임(국교4) 학원자주화투쟁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중단됐던 등학협 구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본격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2학기가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구도서관 공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물관 유물 교체 '사명대사 진영' 등 전시

박물관(관장=장홍식·미술사학)이 제2전시실의 유물 중 20여점을 교체해 오늘(29일)부터 새로 선보인다.

새로 전시하는 유물은 스님 초상화인 진영을 중심으로 △사명대사 진영 △정의 공예품 등이다.

이 중 3분의 1은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목조동자상, 사경유 등이 있다.

한편, 박물관은 학교 홍보를 위해 춘천과 청주 박물관에 본교 유물을 대여했다.

보리수

종교성 지수와 지성

마음의 지능지수라 하는 감성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천적 능력으로 '종교성 지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의 종교성은 우주 의식, 청정, 장엄, 평화, 무아, 신비, 신성, 감사, 자타불이, 자비, 희열 등의 감성으로 경험된다. 종교성 지수는 개인적으로 종교적 신앙이나 경험에 대한 내적 관심의 정도로 표현되며 사회적으로는 종교의례, 종교공동체의 참여 정도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불성을 지닌 존재로 보는 불교적 인간관에서 보는 인간의 종교성

지수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높은 학력을 지닌 이들 가운데도 종교성이 전혀 개발되지 못한 채 지내는 이가 있으며, 반대로 어린이 가운데도 종교적 감성이 뛰어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성과 종교성의 관계에 대해, 최고 학력자는 종교성이 떨어지고 중간 학력층의 종교성이 높다는 설, 학력이 높을수록 종교성은 떨어진다는 설, 지성과 종교성은 무관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높은 지성을

지닌 고학력층은 삶의 궁극적 의미 탐구나 구도적 목적을 지닌 지혜형 종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구에서 일고 있는 비의종교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기성 종교 문화에 염증을 느낀 젊은 엘리트층 가운데 동양적 신비종교와 현대과학이 결합된 신종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른바 '머리의 종교'와 '가슴의 종교' 간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비윤리적 신흥종교 교단에 최첨단 과학연구가나 최고 학력자들이 다수 가입하

고 있다는 사실은 지성과 종교 신앙이 다른 차원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에 따라 종교적 성향과 종교성 지수가 다른 이유를 불교적으로 해석해 보면 전생의 종교적 인연과 수행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생에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능력이 곧 종교성이며 불성이다. 인간의 종교성은 자기 수행과 교육에 의해 무한대로 성장시킬 수 신비의 우주이다.

김용표 불교학과 교수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당신의 존재, 혹시 다른사람이 대신하고 있습니까?

대리출석, 출석 부른 후 나가기...
당신은 혹시 출석부에 기록되기 위한 출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업듣기 ...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 4면 해외민주인사의 귀국

지난 22일 그동안 입국할 수 없었던 민주인사 80명이 한국땅을 밟았다. 이들이 그동안 반체제 인사가 됐던 배경과 입국 후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 5면 학술지로 보는 우리 사회

최근 발간된 학술지들을 통해 현 사회의 이슈와 담론을 살펴본다.
- 8면 예술영화, 관객을 만나다

우리 나라 예술영화 제작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본다.

하이닉스반도체 채용설명회 다음달 8일까지 인터넷접수

하이닉스반도체 채용설명회가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중강당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전자 △전기 △인문계열 △상경계열 등이며,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인터넷 지원 시 필요한 ID를 부여할 예정이다.

하이닉스반도체는 다음달 8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대상은 2003년과 2004년 8월 졸업예정자이다.

무료 건강검진 실시 오늘부터 4일간

보건소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현재형?토목4)가 건강관리 및 입사지원시 필요한 건강검진 준비를 위한 건강검사를 오늘(29일)부터 4일간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검사내역은 △간염검사(항원항체검사) △간기능검사 △소변검사(당, 단백, 잠혈) △총콜레스테롤 △혈압 △흉부엑스레이 △빈혈검사이다.

검사는 재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한다.

불교대, 가을유적답사 오늘(29일)부터 신청

불교대가 가을유적답사를 다음달 9일부터 2박 3일 동안 강원도에서 진행한다.

불교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답사는 △구룡사 △월정사 △상원사를 비롯한 6개의 사찰과 '진전사지터' 답사 등의 일정으로 열린다.

신청은 오늘(29일)부터 불교대학생회에서 받는다.

이와 관련해 불교대의 한 관계자는 "사찰과 불교미술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교육원 문화유적 답사 안동 봉정사에서 진행

사회교육원이 다음달 25일 안동 봉정사에서 2003학년도 가을학기 문화유적 답사를 진행한다.

이번 답사는 사회교육원과정 수강생과 수강생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봉정사 사찰 참배 및 문화재 관람 △하회마을 관람 △탈춤 관람 등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은 사회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강좌의 대표에게 다음달 17일까지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사회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불교유적을 직접 접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학과 학생회 릴레이 시위

학생 - 수업권 위해 강사총원 요구 학교 - 법적 혐의없어 조치불가

사회학과 K교수 수업배정반대와 학습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사회학과 학생회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측과 학생회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학교측은 지난 19일 열린 학생회와의 간담회에서 "K교수가 형사재판에서 무혐의를 받아 학교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판을 계속할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회학과 학생회(회장=김선영·사회3)는 이번 학기 K교수의 수업

3강좌가 개설되자 지난 1일부터 수업거부와 함께 본관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선영 사회학과 학생회장은 "K교수 강의를 전공학생이 계속 거부해 이번 학기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이 모두 타학과 학생"이라며 "해당과목의 강사를 충원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지 않아 사회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해당과목의 전공학생이 수강하지 않아도 수강학생 수가 10%이상일 경우 폐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담당교수

가 있는 상황에서 같은 강의를 하는 강사를 충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현직 교수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사회학과 학생들의 수업거부는 K교수가 지난 2001년 복직된 후 강의를 시작한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K교수에 대한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회학과 학생회는 오늘(29일) 토론회를 통해 △1인 시위 진행 여부 △타대학과의 연계 △K교수에 대한 수업거부운동 평가와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שמ인 기자
qwertewq@dongguk.edu



캠퍼스 '문화카페' ... 학내 문화공간 마련을 위한 '아외카페'가 지난 24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총학생회는 학생들에게 차를 나눠 주었으며, 앞으로 공영 동아리와 함께 매주 수요일 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도서관 중고비품사용 접수 의자·서가 등 다음달 6일까지 선착순

학생처(처장=이관재·통계학) 학생복지실이 구도서관에서 사용되던 물품을 재활용하기 위해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선착순으로 중고비품사용 접수를 받는다.

품목은 △회전 의자 20개 △철재 서가 20개 △목재 서가 100개 △간행물 쪼개기 20개 △컴퓨터 테이블 20개 △의자 2개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중고비품 사용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학생복지실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한 물품은 각 건물로 운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오래된 물품이 아닌 만큼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시학생대표자회의 연기 학내의견 수렴 부족

구도서관 공간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29일) 열리기로 예정된 임시학생대표자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는 학내 전반적인 공간배치에 대한 학생들의 전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영어패스제' 인식 부족 '점수올리기' 보다 실질적인 교육 필요

영어 패스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2001학번 학생들의 졸업이 1년여 남았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패스제는 재학기간 동안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토익 △토플 △토픽 중 하나를 일정 점수 이상 취득해야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준점수를 취득해 언어연구교육원에 접수한 학생은 6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문선화(불교대1) 양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해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언어연구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전토익을 신청한 학생은 263명이었으나 이 중 111명만이 응시해 50%에 못 미치는 낮은 응시율을 나타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 기간 실시하는 모의토익시험에 대한 참여 역시 저조한 편이다.

여기에는 학교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영수 언어연구교육원 과장은 "영어 패스제를 처음 도입할 때 홍보를 하고 꾸준히 알리는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언어연구교육원은 매 학기 실시하던 실전토익시험을 매달 한번씩 시행해 학생들의 참

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영어 패스제 개설 후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다. 현재 학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어강의의 경우 학생, 교수의 참여 부족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교양필수 과목인 영어회화, 실용영어 등 기초적인 강좌만 개설돼 있다.

반면 영어패스제를 시행하고 있는 숙명여대의 경우 올해부터 영어작문, 말하기 등의 과목을 교양필수로 개설해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영어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김지훈(교육2) 군은 "패스제를 통해 점수를 높이는 것보다 우선 실질적인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일률적인 평가보다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영어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각 대학마다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여념이 없다. 본교 또한 일률적으로 학생들의 점수를 높이기보다 실력 향상을 통해 영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황)

학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 오는 11월 1일까지 이용 중단

학생회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로 인해 오는 11월 1일까지 화장실 이용이 중단된다.

공사는 △2·4층=각각 남·여 화장실, 샤워실 설치 △3층=여자 화장실 △5층=남자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1층 화장실은 2층 배관공사와 연계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학생회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정보문화관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오후 6시 이후 1층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철거기간 소음이 발생

하더라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제천으로 가을농활 일손돕기·파병반대 등 활동

총학생회(회장=유영빈·경영4)가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충북 제천으로 가을농활을 떠난다.

이번 가을농활에는 모두 100여 명이 참가하며 일손돕기·이라크 파병반대 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농민들과 이경해 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농업개발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회전문대

설상가상

○...태풍 '매미'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대학원생들은 이중으로 가슴이 아프다는데.

이유인즉 학교에서 지원하는 수해피해 대상이 학부생과 교직원에게 한정돼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학원생도 학내 구성원인 만큼 이들에 대한 피해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수해피해 대책, 대학원생에게는 대책 없는 대책(!)"

역할오류

○...본교 홈페이지 게시판은 '나의 주장' 하나로 통한다는데.

알아보니, '건의사항', '소비자상담실' 등 주제별 게시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구별하지 않은 채 '나의 주장'에 글을 올리는 것이라고.

'소비자 상담실'의 경우 답변을 해주는 전문 상담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주제에 맞는 게시판을 글을 올려야 하지 않겠나.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게시판! 이제는 까다롭게 고르자(!)"

민심니다(!)

○...요즘 수위실이 교학과와의 학습기자재 대여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하는데.

이유인즉 몇몇 수위실에서 대여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마이크 등의 학습기자재를 빌려줘 학생들이 교학과보다 수위실을 많이 찾는 것이라고.

신분 확인을 통해 도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강의실 물품대여, 신원확인 거치지 않는 것은 '공공의 적'"

사라진 건물

○...본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학교 건물이 두 개뿐인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데.

이유인즉 '단과대 소개'란 중 경영대 등 일부 단과대 건물사진이 모두 학술문화관 사진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외부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수시모집기간인 만큼 건물이용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학교건물, 무조건 새 것만 보이자(!)"

『학기 집단상담 안내』

고민 해결, 함께 해요!

집단상담은 비슷한 고민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소규모로 모여, 내 안의 자신을 만나 고민을 해결하고, 함께 한 친구들을 이해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만남의 장입니다.

◆ 집단 소개

| 집단명(리더) | 참가대상 | 일시 |
|----------|---|-----------|
| 참 만남 집단 |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접만남을 통해 자기성장을 하고 싶은 동국인 | 매주 화 1~3시 |
| 해결 중심 집단 | 진로, 대인관계, 성격 문제 등 자신만의 고민거리를 명료화하여 해결책을 찾고 싶은 동국인 | 매주 금 2~4시 |

◆ 리더 : 김해경 (상담심리전문가)

◆ 기간 및 횟수
10월 7일 ~ 11월 21일까지,
매주 화·금, 각 집단별 7회씩 진행

◆ 접수 및 문의
10월 2일(목)까지 선착순 접수
(본관 2층, 구내전화 3931, 3930)

학생 상담센터

동국대학교 창업지원단 입주업체 모집공고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인터넷창업보육센터에서는 2003년도 하반기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지역 : 창업 3년 이내의 사업자, 6개월이내 예비 창업자
- 접수기간 : ~ 10월 10일(금) 오후 5시까지
- 신청서류 : 입주신청서 2부 및 3.5"디스크(입주신청서) 1부 (http://dvc.dgu.ac.kr → 입주안내 → 입주신청서 Download 또는 첨부파일)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심사발표 : 개별통보
- 입주시기 : 2003. 10월~11월
- 접수문의 : 동국대학교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 (☎ 2260-3737)
- 우대사항 : 법인기업 및 벤처확인기업, 병역특례기업 등

(신청가능한 보육실 : 15평, 8평, 5평 → 입주신청서 제출시 희망 보육실 기재)

동국대학교 창업지원단

Daum 과 함께 하는 동국인 Image UP Program!!

취업을 앞둔 학우들의 걱정을 시원하게 날려드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셔서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도 알고, 사은품도 가져가는 일석이조의 재미를 느껴보세요~!

▷기 간 : 9월 29일, 30일 (2일간)
▷장 소 : 본관 중강당

◆ 세부일정 ◆

〈첫째날〉
▷시간 : 오후 4시부터
▷내용 : 1. 인터뷰 시뮬레이션(약 100분)
→ 인사면접을 학우여러분들과 함께 프트로 엮어 진행합니다.
2. 이미지 메이킹(약 50분)
→ 면접에 적합한 스타일로 학우분들의 모습을 확 바꿔드립니다!

〈둘째날〉
▷일시 : 오후 6시부터
▷내용 : 토익 교재 (토정비결)의 저자 이강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영어에 대한 고민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놓치면 후회하실 행사들이니!! 모두들 꼭 오세요~!!

제15대 졸업준비위원회 (후원: Daum 취업센터)

건강검진 공고

대학 기간동안의 개인의 건강관리 및 입사 지원시 기업들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사는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인원 : 재학생
- 비 용 : 무료
- 기 간 : 9월 29일(월) ~ 10월 2일(목), 4일간
10:00 ~ 17:00 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 장 소 : 본교 보건소 (본관2층)
- 검사내역 : 1) 간염검사(항원항체검사)
2) 간기능검사
3) 소변검사(당, 단백, 잠혈)
4) 빈혈검사
5) 총콜레스테롤
6) 혈압
7) 흉부엑스레이

보건소·졸업준비위원회

영어PASS제 토익시험 실시

영어능력 졸업요건(학칙 제54조의2)을 위한 교내 토익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 2003. 10. 18(토) 10:00 ~ 12:20
- 장소 : 동국관 L301, L401, L501
- 응시료 : 4,000원
- 접수기간 : 10. 6(월) ~ 10. 16(목)

언어연구교육원



1. 물적 환경
2. 교과과정 I
3. 교과과정 II
4. 교수임용 및 처우 I
5. 교수임용 및 처우 II
6. 간담회

공간확충 위한 장기계획 세워야

강의실 포화상태 이르러 ... 제3캠퍼스 논의 시작할 때

물적 토대는 교육환경의 기반을 이룬다. 강의실, 도서보유량 등은 교육의 질을 가능할 수 있는 물적 토대로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본교는 이런 물적 토대가 충분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공간부족은 학내구성원사이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특히 타대학보다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건물높이의 제한을 받아 고층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간부족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게 현실이다.

먼저 강의실을 살펴보면, 현재 본교의 강의실 활용률은 약 70%로 공간시간에 강의실을 이용하기 힘들만큼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서울소재대학이 50%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는 현저히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강의실의 여유시간이 적어 시간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강의실부족은 수업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강의실 부족으로 다양한 강의를 신설하기 어려우며, 교양수업과 일부 선화학과 수업의 경우 100여명 이상의 학생이 수강함에 따라 분반조치 또는 강좌증설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형강의실에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될 경우 토론·발표수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교수들의 학생평가도 수월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김중규(불교대) 군은 “철반이 잘 안보

이고 교수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아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강의실이 부족함에 따라 0.5교시 수업을 개설할 수밖에 없어 학생들의 출석률과 수업의 집중도가 저하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실습실과 세미나실 역시 모자라기는 마찬가지다. 사회과학대의 경우 세미나와 토론수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사회학과만 세미나실이 마련돼 있는 현실이다.

열람실 또한 시험기간이면 강의실을 개방해 열람실으로 사용해야 할 정도로 열악하다. 현재 학내에는 약 2천 800여석의 열람석이 마련돼 1석당 4.2명의 재학생이 이용할 수 있지만 대학원·사회교육원·졸업생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열람석 당 학생수 비율은 7명을 넘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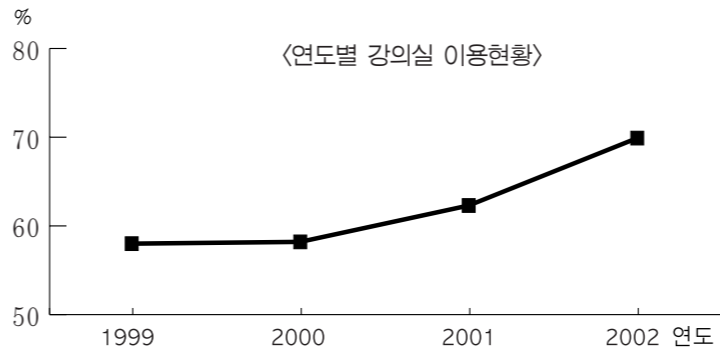
이에 본교는 최근 4년간 △정보문화관 △해화별관 △신 중앙도서관 등 10여 개의 건물을 신·증축했으나 그동안 정원이 꾸준히 확대돼 실질적인 교육공간은 많이 확보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구도서관 리모델링이 마무리 될 예정인 다음에 2학기부터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도서관으로 두 개 단과대가 이전할 경우 기존에 단과대가 차지한 공간을 공용강의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4개 단과대학생들이 상주하는 동국관지역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1천 500여 석의 열람석이 새로 마련돼 열람석 이용도 한층 여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을 통해 일부 단과대학 또는 기관을 외부로 이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공간제한의 대안으로 예전부터 추진돼 온 제3캠퍼스 건립에도 학내구성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각에서는 동국관 2층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를 외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를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학내연계의 약화보다 교육공간확보에 따른 수업의 질적 향상의 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구자룡(영문4) 야간강좌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참여도 예전보다 줄었고, 외부기업 유치보다 기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590평을 차지하는 창업보육센터를 이전하면 60평을 수용 가능한 강의실 20여개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강의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강의실이 포화돼 오프라인 강의를 증설하기는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에서 사이버강의가 활성화될 경우 강의실 당 학생수가 감소하고 다양한 강좌가 신설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개설돼 있는 '사이버자문' 외에도 교재·교과 내용이 같은 교양필수과목을 사이버강의로 일부 대체한다면 강의실 확보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의 질적 향상은 교육공간이라는 물적 기반이 튼튼하게 조성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건물매입·이전 등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때다.

최성민 기자
kwertewq@dongguk.edu

실습·기자재비 예산집행 현실 반영해야

공간 이외의 물적 토대로는 실험실습·기자재비와 도서를 들 수 있다.

▲실험실습·기자재비=실험실습비는 실습에 이용되는 소모품과 현장실습에, 실험실습기자재비(이하 기자재비)는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쓰이는 비용을 말한다. 이를테면 실험실습비는 강의 외 교육활동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기자재비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본교의 실험실습비는 학생 1인당 인문·사회 계열이 3만 8천원, 나머지계열이 약 22만원이다. 이는 본교와 비슷한 규모의 4년제 대학평균인 약 8만2천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문제는 기자재비다. 다른 단과대에 비해

기자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과와 생과, 예술대 등에서는 해마다 기자재가 부족하다는 불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상진(화공과) 교수는 “타대학에 비해 기자재가 충분하지 않아 이미 구비돼 있는 것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는 전체 기자재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 측이 계열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기자재비를 지급하고 있는 데에서 나타난 문제이기도 하다.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답사·세미나 등 소모성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자연 및 예체능 계열은 소모성 실험실습보다는 기자재 마련이 더욱 시급한데, 이를 예산지출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 이와 관련해 예산팀의 한 관계자는 “실험실습비의 경우 다 쓰고 남아, 다음해로 이월되는 금액이 심한 경우 1억원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실험실습비와 기자재비 예산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힘든 이유는 학교측이 실험실습비를 중요한 잣대로 사용하는 대학평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의 한 관계자는 “실험실습비가 절대적인 금액을 놓고 비교하기가 쉽기 때문에 대학 평가의 중요한 잣대로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실험실습비와 기자재비 전반을 현실화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본교는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와

도서보유율은 각각 약 17만원과 약 70여권으로 나타나 본교와 비슷한 규모의 4년제 대학평균인 약 6만4천원과 약 42.6여권과 비교해 두 배 가량 높다. 이 같은 결과는 올해 도서구입비 예산의 10억원 인상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관련 도서와 같이 변화가 빠른 학문의 경우 변화의 속도 보다 도서구입이 늦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이상희(불교2) 군은 “오래된 도서가 많고 논문 등의 전문서적 등은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도서관 서버가 오래돼 도서검색속도가 느리고 대출·반납 등이 느린 점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앞으로 도서의 '양' 뿐만 아니라 '질' 적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사설

진정한 평가는 우리가 하자

지난 24일 발표된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두고 학내 여론이 뜨겁다.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의견에서부터 “학교 다니기가 부끄럽다”는 극단적 비판까지 연일 본교 홈페이지 내의주장 게시판을 달굴 정도다.

이번 평가결과가 생각보다 낮은 수준인 것이 사실이긴 하다. 양적 측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일보 평가기준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학교의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해 봐도, 그리 개운치 않은 결과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30위라는 통계적 수치만을 놓고 왈가왈부한다면 단순히 보여주는 걸보습에만 치중하는 비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한 신문사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정한 '서열' 보다, 대학평가 순위가 몇 번째라는 '등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학교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가에 있다. 이번 평가의 통계적 결과보다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렸는지 그 '내용'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평가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교는 이 평가에서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만큼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저조한 평가를 받은 교수연구 현황도 그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학생들의 학업 수준 역시 지적할 만하다. 때문에 현재의 교육·연구 환경이나 수준은 어떠한지, 학생들과 교수들은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이 아닐 수 없다. 본지에서 연재를 시작한 '동국발전은 교육의 질 향상부터'의 기획(3번 해설보도)도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지속적인 자체 평가를 통해 장기적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 가는 것.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동국의 미래는 바로 그것에 달려 있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겸 주간 이상영, 부주관 구분철, 편집장 류변철, 편집장 안보라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동악 학생운동의 평가와 전망을 듣는다 - ② 오원기 사과대 학생회장

“학생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시킬 것”

‘학생권력’ 만드는 학생회 사업 중요 ... 반자본주의 논의 모색



사과대학생회장 오원기(정외4) 군.

본교 학생운동은 90년 이후 이른바 ‘한총련계열’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왔고 좌파학생운동진영을 비롯한 타 운동진영의 참여는 미약했다. 이에 ‘좌파계열’인 본교 사과대 학생회장 오원기(정외4) 군을 만나 현재 학생운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 90년대 이후 대학사회의 학생운동과 본교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 90년대 이전까지는 사회모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세력이 있었으며 전국

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라는 틀 내에서 공존했다. 그러나 전대협 해체이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전국학생총연합회, 다함께 등 다양한 시각을 가진 학생단체가 생겨났다. 이로 인해 결집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회모순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하게 됐다고 본다.

이에 비해 학생사회는 다양한 욕구가 분출돼 사회 현상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예전에 비해 부족하게 됐다. 결국 이 같은 문제는 학생사회와 학생운동의 괴리를 가져왔고 현재의 ‘학생회 위기’를 초래했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생들의 시각과 욕구를 한 가지로 모으기보다는 각자의 욕구를 수용하면서 사회적 문제에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반전운동을 예로 들면 여성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전쟁시 발생할 여성의 피해를,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전쟁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전한다면 이들 모두 반전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본교 역시 학생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같이 가지고 있으며 해결책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본다.

- 좌파 학생운동에 대해 생소해 하는 학생이 많다. 좌파 학생운동이란 무엇인가.
= 우리나라에서 좌파학생운동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다. 다만 좌파가 무엇인지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각에서 알 수 있다. 이리과 파병을 예로 들면 한총련을 비롯한 민족주의 진영은 ‘미국의 종속을 벗어나 자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파병에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하지만 좌파는 이를 ‘노무현 정부도 자본주의의 고리 속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며 먼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이 같은 시각의 차이를 통해 좌파와 민족주의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본교는 한총련에 비해 좌파계열의 경우 그 활동내용이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 학내에서 좌파운동을 이끄는 이들의 역량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본교내 좌파학생운동진영은 90년대 이후 몇몇 문과대·사과대 학생회를 제외하고는 드물었다. 그러다 보니 사회모순이나 본교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해결방안이 축적되지 못했다.

- 최근 ‘학생회운동’과 ‘학생운동’은 분리돼야 한다면서,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학생운동과 학생회운동이 명확하게 분리될 수는 없다고 본다. 학생회는 학생사회를 이끌어가는 조직이다. 이러한 학생회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학생운동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학생운동이나 학생회운동의 근본은 모두 학생대중 권력창출이다. 이를 이뤄내기 위해서도 학생회가 그 중심에서 학생들의 욕구를 대변하고 그 힘을 표출시켜야 한다고 본다. 학생회의 존재는 학교라는 조직 안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학생의 의견을 말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 본교 내 학생운동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
= 현재로서는 학생사회 안으로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공론화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학기에는 학생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정리부터 시작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과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앞으로 대자보를 붙이고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일부 동아리나 학회에 토론거리를 제시하는 방법 등을 생각하고 있다. 또한 사과대 축제인 ‘능금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반 제국주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건학 10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

오는 2006년 동국대학교가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동국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건학 100주년 기념 슬로건'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 의의
2006년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여 동국 100주년을 기념하고 전 동국인이 공통된 목표를 향해 공동의 이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동국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 큰 뜻이 있다.
2. 슬로건 내용
가. 건학 100주년 기념 나. 공통된 목표를 향한 공동의 이념을 가질수 있는 내용 다.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 예시) 밝은 동국 맑은 동국
3. 응모 대상 : 전 동국인
4. 접수 처 : 건학 100주년기념사업회 (E-mail) dgu100@dongguk.edu(발신자 및 연락처 명기)
5. 접수 기간 : 2003. 10. 31까지
6. 선정 방법 : 건학 100주년기념사업회 심사위원회 심의
7. 당선 발표 : 예정 2003. 11. 17(월) 동국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dgu.edu)
8. 시상
가. 대상 : 1명 (50만원 상당)
나. 최우수상 : 1명 (30만원 상당)
다. 우수상 : 1명 (20만원 상당)
단, 심사결과에 따라 부분별 수상대상이 없을 경우도 있음.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

동약로

백지공개



“등록금 사용내역은 나와있는데 학생회비는 어떻게 사용됐을까?”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예·결산 공고를 보던 1군은 자신이 낸 학생회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해졌다. 이에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둘러보며 학생회비사용내역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는 감사가 마무리된지 한 달 후에도 대부분 단위가 감사 및 사업평가서와 정산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총대의원회(의장=임수옥·화공4, 이하 총대)는 이번부터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감사결과를 한꺼번에 수합한 책자를 제작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총운위를 통해 수차례 알리고 확인전화까지 했음에도 자료를 제출한 단위는 아직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공개한 단위도 거의 없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의 사용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각 단위 주체들이 자료제출을 중요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있고 있었어요.”

이는 우선 각 단위의 책임감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학생회비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데 소홀했던 것이다.

감사공개에 관한 시행세칙이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세칙에 따르면 피감사기구가 감사·사업평가서와 정산서를 감사 후 즉시 대자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징계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총대측은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감사기구로서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학생회사업은 ‘학생들의 돈’이 사용됨에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학생들로부터의 외면은 결코 피할 수 없다.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해 어렵다”고 하소연만 할 게 아니라 외면을 신뢰로 바꾸기 위한 작은 노력부터 다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현대사 저편에서 돌아온 사람들

■ 해외민주인사 80여명 귀국

독재정권에 맞서 우리나라 민주화 쟁취를 위해 앞장선 사람들을 흔히 우리는 ‘민주인사’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사상의 자유를 위해, 독재정권의 압력을 피해 고국을 떠나야만 했다. 그런 이들이 몇 십 년 만에 조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지난 22일부터 4일간 진행된 ‘해외민주인사초청 한마당’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송두율(윈스턴대 철학) 교수, 선우학원 박사, 문동환 목사 등 미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민주인사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 옛 안기부터·서대문 독립공원 등 민주화 운동 현장 방문, 3년전 남한의 최북단에 개통된 도라산역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리형호 6.3 동지회 상임이사는 “고국의 민주화를 직접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이같이 민주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7월 준비서약서 폐지의 역할이 컸다.

준비서약서는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국가보안법 사범의 석방 조건으로 국법 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자필 서약서를 제출토록 한 것. 이는 지난 98년 사상헌장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이에 민주인사들 대부분이 귀국과 동시에 요구되는 준비서약서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임국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적 혐의가 인정된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을 기소하지 않고 선처할 경우 그 조건으로 제출 받는 충성서약서는 폐지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40여년 만에 귀국한 선우학원 박사는 ‘준비서약서 폐지는 한국 민주화의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완전한 민주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보안법·충성서약서 철폐가 진정한 민주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율 교수를 비롯한 민주인사들이 ‘무사히’ 귀국했지만 논란은 아직 남아 있다.

이번 민주인사 중 송두율 교수를 대한 조사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위원 김철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낮은 수준의 처벌 방침이 내려질 것으로 점치는 이들이 많은 상태다.

올해 참가한 인사들 외에 아직도 많은 해외 민주인사들이 조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남·북의 주요 인사들의 교류도 활발한 지금, 과거 민주인사들에 대해 정부가 더욱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취업준비생 위한 강연회

“노동권·자산관리방법 알아둬야”



지난 22일 진행된 ‘예비취업자들의 권리...’ 강연회.

취업 준비생이 원하는 것은 취업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 초년생으로서 성공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다.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자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은 분명 토익점수를 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할 것이다.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현재형)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자신있는 사회진출을 위한 강연회’

는 이러한 의도에서 마련됐다.

먼저 지난 22일 ‘예비 취업자들의 권리와 당연한 현실’을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는 노무법인 ‘현장’대표 이요표 공인 노무사가 강연을 맡아 노동 기본권과 노동권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이 노무사는 특히 근로기준법을 잘 숙지해 둘 것을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으로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나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자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법이다. 또한 이 노무사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사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둔 경력이 있는 한 학생은 “퇴직금 중간 정산제 등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직장 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및 신용관리” 강연회는 지난 24일 ‘부자의 꿈을 꾸어라’라는 소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강연의 특징은 자산관리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다. 강연을 맡은 서춘수 재테크 팀장은 “한번에 많은 재산을 모으려 하기보다는 평소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단시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손대기 쉬운 주식투자 또한 “경제적 위치가 안정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서 팀장이 제시한 재테크의 원칙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월소득 절반 이상 저축 △절세형 상품 이용 △저축과 별도로 월 수입 5%이상 목적형 보험에 투자 등이다.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많은 질문을 던져, 재테크 및 자산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회)
 gazzababo@dongguk.edu

그들은 왜 ‘반체제인사’가 됐나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됐던 이들이 풀려난 모습.

계 인사와 함께 투쟁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 계획이 정부에 노출됐다.

박정희 정권은 이들의 움직임에 크게 당황한 나머지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하고 235명 구속, 180명 기소했다. 이철, 유인태, 김지하 등 7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지만 이들은 10개월이 못되어 전원 석방됐다.

송두율 교수는 민청학련 사건을 계기로 독일에서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발족시켜, 그 때부터 반 체제 인사로 분류됐다.

▲평등사건=79년 3월 1일에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을 의장으로 내세운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은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며 민주주의와 통일, 그리고 평화에 관한 공약 3장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재야의 지도급 인사들이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는 혐의로 대거 구속했다. 이 사건으로 윤반웅·문익환·함세웅 등 18명이 기소됐고

해외 민주인사 초청 한마당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귀국한 송두율 교수, 문동환 목사 등 48명은 그동안 반체제 인사로 분류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연루된 사건들을 들여다보자.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통과시키자 대학생들은 전국 규모의 투쟁조직인 민청학련을 결성해 재야 인사나 종교

관련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이 초청 받은 해외민주인사 중 문동환 목사가 이 사건과 연루돼 투옥됐다.

▲한통련(재일한국민족통일운동연합) = 독재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재일 동포들은 73년 8월 15일 현 한통련의 전신인 ‘한국민주회복통일추진회의’(한민통)을 만들었다. 현재 한통련은 89년 한민통이 개편된 것.

‘김대중 구출투쟁’을 비롯한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화 운동 등이 문제가 돼, 유신 정권 때 ‘반국가단체’로 규정(78년의 대법원 관시) 됐으나 아직까지 철회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양동민 한통련 부의장, 김정부 기획실장 등 10여명의 한통련 간부들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국정원이 이들에 대해 이번 행사에 한해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한독 문화원 김성수 박사는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가 70년대 최중길 교수 사건, 87년 과묵 광부 간첩단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돼 그동안 반체제 인사로 분류돼 온 인물.

(회)
 gazzababo@dongguk.edu

이주의 시사 키워드

인티파다 두번째 이야기

지난 24일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 27명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거주지역 지역에 대한 공격을 더는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팔레스타인 민간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공습을 감행하고 있는 지역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지난 45년 유대인들이 2천년 전 자신들의 땅을 찾겠다고 밀려들어오자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국가들은 이들을 상대로 3차례 걸친 중동전쟁을 벌였으나, 결국 일부 지역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으로 남았다. 인티파다(Intifada)는 아랍어로 ‘민중봉기’라는 뜻으로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저항을 뜻한다.

당시 중동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각종 신무기가 등장할 만큼 두 강대국의 ‘대리전’ 양상이 짙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데, 지난 이라크 전쟁에 90% 이상의 국민이 적국찬성을 보냈을 정도다. 미국 내 각종 연구결과에서 미국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엘리트의 절반 이상이 ‘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나타나는 것도 흥미롭다. 그만큼 둘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이다.

얼마 전 미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편만 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세계 최강대국이 과연 팔레스타인과 이라크가 모두 수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펼쳐 보일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지난호 ‘동대인 최고 스트레스는 취업 및 진로’ 기사 중 ‘186명 대상 설문조사’를 ‘183명 대상 설문조사’로, ‘획일적인 목표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와 피폐해진 인간관계라는 대답이 48%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박탈감(39%)이 그 뒤를 이었다’는 ‘획일적인 목표 강요하는 사회분위기와 피폐해진 인간관계라는 대답이 33%로 가장 많았다’로 수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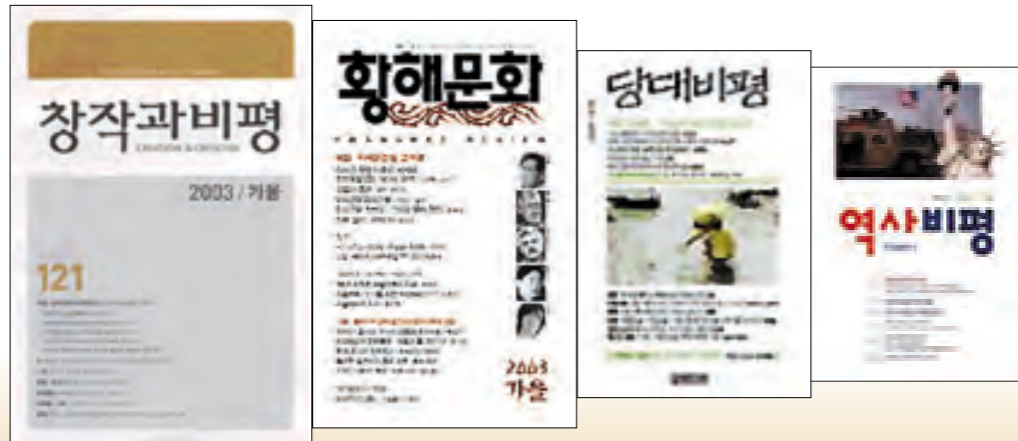


학술지로 보는 우리시대 우리사회

최근 발간된 학술계간지들을 통해 현 사회의 이슈와 담론을 살펴본다.

담론의 생산·소통 공간에서 진단하다

위기에 빠진 '무능력한' 사회



왼쪽부터 창작과 비평, 황해문화, 당대비평, 역사비평 기출호.

현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평가를 내리 본다면 어떤 결론들이 나올까. 물론 어떤 부분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담론과 이론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한 각각의 담론과 이론들이 나름대로의 근거와 사회적 통찰을 담고 있다면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우리 사회의 유용한 나침반이 되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러 학술지들은 이처럼 우리 사회의 이슈들이 활발하게 생성되고 논의되는 공간 중 하나로, 최근 발간된 학술지들 역시 현 사회의 모습을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당대비평'은 개인의 내면 속에 요약돼 있는 우리 시대의 갈등을 포착하고 있다. 특집으로 실은 '무능력자에 대한 보고서'가 그것. 이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능력있는' 사람과 '무능력한' 사람의 구별짓기를 행하고 있으며 더욱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등을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생산력이 곧 능력의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내면에 더 나은 능력에 대한 맹목적 지향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화평론가 서동진 씨는 "백수, 탈근대 자본주의의 무능력자들"이라는 글에서 "순수하게 노동의 가치에 부여하는 능력의 기준이 퇴색된 상황에서 무능력의 표상인 백수는 이미 무능력자가 아닌"이라며 능력 감각 사회를 꼬집었다.

당대비평이 하나의 사회 현상을 분석했다면, '창작과 비평'은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정치사회적 조건을 진단, 비판했다. 홍익대 정성인(경제학) 교수는 시평에서 참여정부의 현 경제정책에 대해 "아이에게 억지로 청소를 맡기면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모두 적당히 카펫 밑으로 밀어넣듯이, 관료들이 펼치는 그것 역시 당장 그때그때의 어려움만을 모면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현재까지의 전망은 비판적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인적 구성의 재편을 통한 재발개혁, 금융개혁, 중장기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제시했다.

한편 특집으로 마련한 '21세기 한반도 구상을 위한 평화체제와 평

화운동'은 한반도의 반전평화운동의 구체적인 연대와 유연성, 실질적인 체제의 구축 등 앞으로의 발전전략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는 '가위눌린 한반도, 깨어나야 할 우리'에서 "이제 우리는 '밖'을 상대로 운동할 때만큼이나 치열하게 '안'을 향해 운동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렇다할 전략이 부재한 정부와 내선 총선에만 열안이 돼있는 국회, 반미·반북의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시민사회의 모습 등은 '가위눌린' 한반도의 현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이제는 반성하고 진단하면서 처방을 찾아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화과학'은 불안요소가 팽배한 오늘날의 사회적 현상을 루만, 하버마스, 기든스 등 대표적인 위험사회론자들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전북대 정태석(사회학) 교수가 진단한 바에 의하면, "위험사회로서의 한국의 자화상은 현대성의 분화로 인한 위험과 전근대사회적 위험이 뒤섞여 있는 상황"으로 그 안에 내재된 불안요소들은 선형적으로 더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비평'은 최근 범람하는 중국관계 연구가 문제설정부서 결론까지 미국학계의 복사판이라는 분석을 통해 우리학문의 신식민주의 경향에 대해 비판했고, '황해문화'에서는 '좌파여, 자성하라'는 글이 눈에 띈다. 진보진영이 내부에서의 비판과 반비판에는 전력을 기울이면서 진보이념의 대중적 확산에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신랄한 비판이 그 내용이다. 이처럼 각 학술지들은 저마다의 시각과 주제로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소통 방식이 글쓰기와 읽기라고 할 수 있듯이 많은 지식인들이 그 안에서 사회가 접하는 의미를 창출, 표현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시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학술지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 단순히 개인 수준의 주장이나 연구 차원을 넘어 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묻고 답해야' 하는 문제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사회에 대한 분석적 통찰 담아

비판과 대안 제시하는

'나침반'으로서의 우리시대 학술지



이 중 권 (수학교육)교수의

사상가 이야기

삼차방정식 해법의 발견자, 니콜로 폰타나

(Nicolo Fontana · 1505~1559)

일차 방정식 x+3=2x+2의 해는 x=1이다. 이차 방정식의 해도 쉽게 근의 공식으로 유도된다. 그렇다면 삼차 방정식은 어떨까. 이차방정식에 대해서는 쉬운 해답을 찾았던 인도 사람들도 삼차방정식의 해는 구하지 못했다.

인도의 한 수학자는 '어떤 수의 세제곱에 그 수의 12배를 더하면 그 수의 제곱의 6배에 35를 더한 수와 같다'와 같은 특별한 경우의 해를 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문제의 해결만으로는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사암이 발달한 인도에서는 수시로 여러 가지 삼차방정식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금 a원이 있다. 복리로 계산해서 3년 후의 원리합계가 c원이면, 연리는 얼마가 될까.

이러한 문제의 잦은 출현은 수학자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삼차방정식을 연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5세기 말경까지도 그 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16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니콜로 폰타나(Nicolo Fontana · 1505~1559)는 바로 삼차방정식의 해법을 발견한 수학자다. 그는 어렸을 때 집안사정이 여의지 않아 학교에 다닐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친구의 헌 책을 빌려서 혼자서 공부를 했다. 종이를 살 돈조차 없었던 그는 아버지의 묘비에 돌맹이로 글씨를 쓰면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 끝에 그는 30살이 되기도 전에 베니스의 수학 교수가 되었다.

그 당시에는 수학 경기라는 것이 유행했는데 두 명의 수학자가 같은 수의 문제를 내고 정해진 기간 동안

누가 더 많이 푸는가를 겨루는 시합이었다. 이때 주로 출제 되는 문제가 아직 미해법 상태에 있던 삼차방정식 문제였다.

여러 수학 경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535년에 있었던 폰타나와 또다른 수학자 플로리도 간의 시합이었다. 플로리도는 볼로냐 대학의 교수이자 특수한 형태의 삼차방정식 해법을 발견한 페로의 제자였다. 페로는 그 해법을 플로리도에게만 가르쳐주고 세상을 떠나 전 유럽에서 삼차방정식의 해법을 아는 사람은 플로리도 단 한 사람뿐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30문제를 50일 동안 푸는 수학 경기에서 플로리도는 단 한 문제도 못 풀 반면, 폰타나는 단 두 시간만에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한다.

폰타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해 마침내 1541년, 삼차방정식의 가장 일반적인 해법을 발견, 그것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대수학에 관한 책을 쓰고자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발견한 공식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지 못했다. 카르다노라는 수학자가 그의 공식을 가로채 자신이 발견한 것처럼 책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공식에는 '카르다노의 공식'이라는 명칭이 붙었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불리고 있다.

이탈리아의 수학자, 물리학자. 수학의 연속에 대한 일반론, 신리학, 가 지까지 문체와 발견 등 저술.



한국산업사회학회 비판사회학대회

사회학자들의 세계패권 파헤치기

물리학·이데올로기 통한 미국의 패권행사 모순 분석



발제에 이어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패널과 청중들.

제6회 비판사회학대회(회장=서관오·충북대 사회학 교수)는 열개는 맑시즘에 바탕한 사회구성체논쟁부터 가깝게는 '우리 안의 파시즘 논쟁'까지, 당대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정면으로 다루는 진보적 사회과학 학회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미국이 물리력과 이데올로기를 통해 세계 민중에게 패권을 행사하는 방식과 그 모순을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민중 재통합의 길로서의 체제수렴'을 주제로 한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의 전체강연이 진행되기도 했다.

대회에서 발표된 미국 관련 논문과 논의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제사회 속 미국' '북한과 남한 속의 미국' '미국이 바라본 한국'이다. ▲국제사회 속 미국= '미국과 전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병진(정치학) 경희대 연구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부시정부를 군수·석유자본과 지배엘리트의 음모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 정부에 대한 경제주의적 해석을 경계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신제공격독트린'은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고려됐던 것이며, 9.11은 이를 더욱 "타락하고 부패한"방향으로 바꿔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정구(사회학) 교수는 "참여정부 자주국방의 과

제와 전망'에서 우리정부가 제시한 자주국방의 모델을 △대미지주 △북한흡수 △대미예속형으로 구분해, 각각의 가능성을 가능해 보았다. 강 교수는 의하면 '정부의 의지' '한미관계 등 구조적 제약' '민중사회 등 구조적 추동력'의 독립변수를 기준으로 따져 본 결과 정부의 '자주국방'은 대북흡수-대미예속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남한 속의 미국= '북한과 미국' '우리 안의 미국'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논의됐다.

김진환(사회학) 박사는 '부시정권의 대북 위협과 북한 개혁의 미래'라는 논문을 통해 91년부터 공세적으로 바뀐 미국의 동북아시아전략이 북한의 경제개혁을 방해했음을 설명했다. 이에 비해 김기환 민족21 기지는 앞으로 진행될 남북경협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협정들을 짚었다. 경제분야는 남북관계개선에서 중요한 '열쇠'로 여겨지는 만큼 학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27일 오전에 진행된 '우리안의 미국'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 내 미 사대주의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뤘다. 한신대 윤상철(사회학) 교수가 '한국 사회학자들의 논문 에 나타난 한국사회학의 대미종속성'을 살펴본 점이 흥미로웠다.

▲미국이 바라본 한국=한국역사연구회의 정일준(이주대 국제학부) 교수, 이상윤(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현(사회학) 박사 등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관계와 유신체제' 연구사업의 성과물들을 '중간보고' 차원에서 짧은 보고서로 묶어 발표했다.

이는 미 정부가 한국사회에 대해 작성한 문서 가운데 가장 최근 발표된 유신체제 당시의 것을 바탕으로, 한미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정일준 박사는 "미 정부가 공개한 문서들만을 연구하는 한계가 있지만, 한미관계의 큰 틀은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의하면 한미관계는 탄탄한 동맹으로 보이지만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정치적 반목과 암투가 눈에 띈다. 특히 박정희를 위대한 인물로 평가한 미국의 보고서에서 이러한 부분이 잘 드러난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학술단신

'민주화운동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박현규)와 학술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조희연·성공회대 사회과학부)가 오는 30일 프레스 센터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37년만에 귀중한 송두를 교수가 기초발제를 할 예정이어서 더 주목되는 행사.

'개념과 담론'을 주제로 하는 1부에서는 △민주화 운동, 민주화, 민주주의-개념과 한국적 특성을 중심으로=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학) △한국민주화운동과 자유민주주의=김세균(서울대 정치학), '역사와 균열'을 주제로 하는 2부에서는 △한국 민주화운동과 반공주의=김귀옥(성공회대 사회학) △동아시아 20세기와 한국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이삼성(한림대 정치학), '성찰과 미래'를 주제로 하는 3부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운동, 87년 이전과 이후=조희연 △민주화운동과 운동 문화의 반성적 성찰=박승욱(민주화기념사업회 기획부장) △민주화운동,

무엇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정근식(전남대 사회학)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대 사법학회 학술 심포지엄

법과대학 사법학회가 '호주제 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란 주제로 제15회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다음달 4일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호주 제도 △호주제도 존폐론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사법학회 회장(박문수·법2)은 "호주제가 이슈화되었음에도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새로운 신분 제도에 대해 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수동정

△홍영식(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과)=제1회 words-2003f 참가 위해 오늘(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탈리아 방문

Advertisement for Dongguk University featuring a woman holding a book and text: '당신의 지성, 활짝 펼치십시오!' and '학술상·문학상 작품 모집'.

소나기

이라크 전투병 파병!
내 생각은 이렇다



△후보자였을 때 담당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 결국 파병을 강행하다니. △미국을 위한 파병보다는 이라크를 위한 파병이라 생각하자. 국제 사회에 힘이 되는 우리나라도 좋다.

△명분 없는 전쟁에 명분 없는 파병.

△약소국의 비애가 아닐까. 파병하자, 이라크 국민이 불쌍하고 파병 안 하자니 우리의 국적이 손해니까.

△파병은 미친 짓이다.

△파병 찬성하는 사람들 전부 전투병이랑 같이 보내요.

△파병은 당연히 지원자를 보냄을 전제로 해야지. 그럼 뭐 강제로 보낼 생각이란 말인가. 난 당연 찬성이다. 돈만 많이 쥐.

△파병. 예비군 5~6년 차로 보내주면 또 그런 말이 나올까.

△미국, 영국이 아시아에 나타난 그 순간부터 아시아 전체가 더 엉망이 되었다.

△파병된 군인, 이라크에서는 일제시대 허리에 갈찬 일본 순사처럼 보일걸. 김구 선생님이 보시면 통곡하시겠군.

△절대 반대요. 그런 무의미한 전쟁에 우리 나라의 젊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 이견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쟁, 세계의 양심들이 비웃는다. 미국의 비위를 맞출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부시가 태풍 피해 위로금 5만 달러를 주어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이 보내라는데 보내야지...

△베트남 파병때처럼 우리도 후손들을 위해 희생하자.

△우리 나라 지키기도 힘들다. 통일이 되거든 많이 보내주마. 기다리고 있어야. 부시야.

△반대요. 결정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나 죽는 건 우리 젊은이를. 친구, 오빠, 동생들입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짐을 강요하지 마라.

△실리 속에서만 명분을 찾을 수 있는 파병안들은 가치도 없다. 찬성하는 자만 총틀고 지원해라.

필자는 사람의 일생가운데 본인의 의지, 노력과 관계없이 결정적인 영향을 일생동안 미치는 것이 있다면 첫째 '어떤 나라에 태어나는가'. 둘째,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는가'. 그리고 셋째, 어떤 성(性)으로 태어나는지의 여부라고 생각한다.

양부모를 만난다든지 성전환을 할 수는 있겠지만 뒤의 두 개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상대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첫째 항목인데 이민을 간다든지 혹은 시민권을 취득하든지 하는 방법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

인도의 빈민가에 태어난 아기와 미국 시민으로 태어난 아기가 일생동안 어떤 삶의 궤적을 살 것인가를 모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과거와 달리 우리는 전 세계의 현실을 매일매일 낱낱이 접하는 글로벌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

'시민권'도 상품이 된 시대

시민권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극명한 차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소중한 '자원'의 하나이다.

그래서 미테랑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었던 프랑스 최고 지성의 한사람으로 손꼽히는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21세기사전'이란 책에서 미



논단

박민선
농협대 사회학과 교수

만약 한국의 시민권을 판다면

래에는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교육, 의료, 최소한의 소득을 누릴 권리를 외국인에게 부여하지 않는 국가에서 시민권은 소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서는 시민권이 자국의 통화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어 자국여권을 최고 입찰자에게 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쓰고 있다.

그의 말대로 된다면 각국의 시민권은 시장에서 가치대로 팔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때의 자국 여권의 가치는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교육, 의

료, 최소한의 생활보장처럼 국가가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의 가치로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극소수 부유층이 아니라 공무원, 교사와 같은 일반 중산층까지도 원정출산을 하고 있다. 한국사람들이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식이 누릴 미래의 가치가 현재 지불하는 비용보다도 엄청나게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수요가 생겼고 그 수요가 늘면서 비즈니스로까지 발전하여 공급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흡수형 채널에서 기록적인 짧은 시간에 이민상

품이 매진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이미 몇몇 국가의 시민권이 돈으로 거래되고 있는 증거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허약한 안전망

물론 도덕적으로 원정출산이나 이민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지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사실은 만일 아탈리의 말대로라면 과연 한국의 시민권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될 것인가라는 점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사회에서 개인이 감내해야 할 많은 비용, 엄청난 사교육비, 육아비용, 의료비용, 높은 청년실업문제 등등이 모두 시장에서 평가될 것이다. 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 더 많은 사람들이 타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린 아이 출산감소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나중에는 원정출산 갈 비용이 없어 아이낳기를 포기하고 이민상품을 살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다.

독자서평 - 파페포포 메모리즈

'가볍지만 무거운' 일상 속 이야기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다카온 가을을 맞아 찾은 서점에서 눈에 띈 변화가 느껴진다. 글에 만화나 그림이 첨부돼 새로운 느낌을 주는 형식의 책들이 진열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파페포포 메모리즈'란 책이다.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의 베스트 셀러 목록에서 오랜 기간 빠지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탓이다.

파페포포 메모리즈는 누구나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첫사랑의 추억과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을 사랑, 의미, 관계, 시간, 추억의 5가지 테마로 나눠 만화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한번 보고 시간이 흐른 후에 잊을만한 단순한 만화책은 아니다. 주인공의 일상 속에서 표현되는 내용이 독자들의 가슴속에 있던 경험이나 추억들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하려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이유는? 내가 준 선물, 그것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 어리석은 마음 때문. 그러면 사랑이란?' 내 욕심을 그 사람에게 강제하지 않는 것' 등과 같은 식의 짧지만 감동적인 에세이적 글은 이미 고집어낸 독자들의 추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하고 결국 작가의 생각에 공감하게 만든다.

만화로 표현돼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한장 한장을 넘길 수 있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속 감동과 자극을 받게 만드는 파페포포 메모리즈, 독서의 계절이라는 입박에 엔지 책을 읽어야 할 것 같은 가을, '가볍지만 무거운' 이러한 책으로 압박에서 벗어나 보는 것은 어떨까.

정은경 (불교대 선2)

현명한 소비자는 통합번호를 주목한다

야밤의 무도장에서나 들릴만한 댄스음악과 아슬아슬한 차림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도우미들의 몸짓들, 그리고 핸드폰을 무료로 준다는 솔깃한 소리. 지금은 거리에서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 내년이면 다시 등장할지도 모른다. 바로 번호이동서비스와 010 통합 번호제 때문이다.

이제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그대로 가지고 다른 이동통신회사의 서비스에 가입이 가능하고, 2006년도부터는 010으로 모든 번호가 통합되어 '번호의 자부심'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아무래도 현재 요금제가 가장 비싸고,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에게 가장 불리할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현 정권이 SK분식회계사건 이후 SK그룹 축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견해들도 있다.

어쨌든 우리 소비자들에겐 좋은 소식이다. 알 수 없는 통신요금제도에 휘둘러 왔던 소비자들이 과감하게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찾고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이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핸드폰 요금 청구서가 무척이나 가벼워 질 것이며, 당당한 소비자가 될 수 있다. 부모님이 주신 귀중한 용돈을 이제 제대로 알고 쓰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면 이동통신3사의 마케팅전략에 한번쯤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큰 재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유종호 (정보산업대 정보시스템5)

'주체성'을 살찌우는 가을로

'하늘은 높고 땅은 살찐다'고 했던가. 가을은 그런 계절이다. 여름내 내리쬐던 태양이 따사로운 햇살이 되는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막연히 가슴팍이 시원해지는 그런 계절, 가을이다.

하지만 그 하늘을 뒤로 하고 교실에 들어서면 여전히 답답함에 철지난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다. 콧방울이 자리에 앉기도 힘든 책갈음을 비집으며 들어가다 보면 우리만의 동물처럼 눈치 보는 나를 바라보며 가을은 그새 멀어져간다.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의 치장된 순결 속에 우리는 가을하늘 볼 여유조차 사라졌는지 혹은 취업이라는 자본의 그물 속에

서 우리는 너무 허우적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아직 젊다"고 말하기엔 가을 하늘이 너무 맑다. 그 맑음으로 우리 젊음으로 그것이 현실적이나 비현실적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무엇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 치열한 고민 속에 가끔 답답하다 보면 소주 한 잔 기울이다 붉어진 얼굴이 되어 빠알간 단풍을 바라보는 가을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네모난 건물과 책상에 앉아 네모난 칠판판을 바라보면 우리도 어느새 각이 져 잊지는 않을까.

수동적으로 재생산되는 학교의 컨베이어벨트에서 내려오자. 상품으로 전락된 나의 가치를 벗어 버리고 자신의 두 발로 광장에 서자. 마비(麻木)된 높은 하늘의 천고마비(天高馬肥)는 아니지 않나. 피동피동 자신의 주체성을 살찌우는 가을이 되자.

권오정 (사범대 교육2)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돌지 않아도 되는데... - 장미애 - substory@hanmail.net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지구는 돌아야 하지.

자식 키우며 살아가려면 차 바퀴도 돌아야 하지. 근데,

재까지 돌아야 하나?

상반기 독서 2003.3. 학원파괴 서열파괴 상벌파괴 2003.9. 대학서열 재확인 정부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학내기사 날카로운 비판 돋보여
스트레스 설문분석 해설성 부족

지난호 동대신문은 날카롭고 비판적인 학내기사가 돋보였다. 하지만 사회면과 주재기획면에서는 학생들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설정한 의도는 좋았으나 분석이나 내용전달이 진부했던 아쉬움이 있었다.

2면의 동아리 지원금 분석에 대한 보도기사는 자치기구의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꼬집었다. 보도면 학생대표자회의 기사에서는 하반기 학생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구종도 공간배치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단순히 보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해결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쟁점을 제시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해설보도에 대한 동아리 학생회동들의 전망에 대한 인터뷰 기사는 지난호 한총련에 대한 토론회 기사와 연관되어 한총련과 학생운동이 학생들 속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기사였다. 시의적절한 이라크 파병에 대한 사실도 돋보였다.

사회면의 동대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기사는 동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자살급증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는 있으나 면 전체를 모두 차지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인지 의심스럽고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유도하는 과정에서도 부족함이 있었다.

주재기획의 청년실업에 대한 기사는 유용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동아리 학생의 취업준비과정을 소개하는 등 학생들의 일상에 다가가는 기획 의도는 돋보였으나 구체적 정보와 사례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정보와 차별성이 없는 내용이었다.

문화면의 온라인 음악유통과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 기사에서는 온라인 음악유통에서 드러난 양측의 시각 차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여론면 컬럼 '오솔길'은 분관 수위아저씨의 따뜻한 이웃사랑과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기사였다.

이동철 (문과대 독문3)



축하합니다

△동현형 지은양 예쁜 사람 하시길 바랍니다.

△10월 5일은 아름다운 그녀의 생신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자정 호리

△조반장, 생일 축하해. -유,구

△운수아, 생일 축하해. -99들이

△200일 축하해요. WR♥WJ

△광고학과 박민우. 30번째 여자친구 만든 것 축하합니다. -재신

△훈이형 어제 학교 벤치에서 키스한 것 축하해요.

△동배형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동생

△영삼아 임대 축하해 -여친

△경재 99 최수미 정보처리 기사 합격 축하합니다.

△상욱아, 생일 축하해. 잘 살아라.

열심히 합시다

△왕형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하세

동악광장

요.

△신문방송학과 소모임 가면의 유희 '환상회곡' 대박나자.

△형식. 언어 숙제 열심히 해. 미주도.

△가교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한민, 잘해. -인선

△국고 99들이 최고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선생님 되자.

△역사교육과와 지리교육과 공사스터터 팀. 공동수석 하세요.

△은주야. 열심히 해.

△너도 열심히 해.

수고하셨습니다

△민희야, 너의 선·후배사랑에 감동받았다. 수고해. -1

△영재형, 사랑해요.

△김두용 사랑해.

△사회학과 1인 릴레이 시위는 계속됩니다. 사회학과 여러분, 힘냅시다.

-땀뿡커플

△사회학 전공 99학번 한정훈 지의태 수고했어.

△진도~ 하숙방 옮기느라 수고했어. 이제 이웃사촌이다.

△국문과 임원진 여러분 국문주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문과 논문 발표하셨던 여러분,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논문에 정진하시길.

△국어국문학과 동문체육대회가 즐겁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답사 간다고 수고했어요. -표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를 즐겨야 합니다. △하나야. 아픈 것 다 나왔냐. 동선이랑 이화가 걱정하잖아. 열린 나아라.

△학교 평가 30위래. 공대는 20위도 못 들고. 누가 어떻게 좀 해 줘.

△송이야 사랑해.

△진도야(행정99) 이사한 것 축하해.

△'생동'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고종현 바보. 김세명도 만만치 않음. 똑같은 녀석들 -제일 천재가

금주의 식단

| | 동국관 | 상록원 | 교직원 |
|----------|---|---|--|
| 월 (9/29) | 김치수제비 (1300) 치킨가스 (1500) 갈비경단 (1500) | 소고기미역국 (1500) 미트볼덮밥 (1500) 김치볶음밥 (1500) | 된장찌개 (3000) 소고기전골 (3200) 두부김치 (3000) |
| 화 (9/30) | 소고기해장국 (1500) 낙지제육볶음 (1800) 비빔밥 (1500) | 영양갈비탕 (2000) 해물덮밥 (1500) 순대볶음 (1500) | 된장찌개 (3000) 도나티ங (3500) 황태구이 (3500) |
| 수 (10/1) | 감자탕 (1500) 소고기볶음밥 (1500) 오징어소면무침 (1500) | 부대찌개 (1500) 돈갈비찜 (1800) 생야채비빔밥 (1500) | 된장찌개 (3000) 초밥우동 (3500) 장조림백반 (3200) |
| 목 (10/2) | 햄숙이찌개 (1500) 닭조림 (1800) 족발 (1500) | 짬뽕국밥 (1500) 모듬볶음밥 (1500) 닭꼬치구이 (1500) | 된장찌개 (3000) 일탕 (3200) 삼겹살야채말이 (3200) |
| 금 (10/3) | 개천절 휴무 | | |

■ 금주의 추천메뉴 ■

영양갈비탕(상록원 화요일 조식)

48시간 고아낸 사골국물에 갈비, 사태, 지단, 대추, 파를 넣어 끓인 탕으로 국물 맛이 훌륭하고 영양가도 높다. 뿐만 아니라 뼈에 붙어있는 살을 떼어먹는 재미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원기회복과 환절기 감기 예방에 으뜸인 음식이다.

지금은 통화중? 지금은 촬영중!

일부 카메라폰 광고 '몰카' 조장 ... 사생활 침해 문제 심각

“난 열지 않고 찍는다”
한창 방영중인 모 휴대폰 회사 카메라폰 광고의 메인 카피다. 광고 내용은 주인공인 남자 배우가 공황 라운지에서 춤을 추는 척하며 주변 여성을 몰래 촬영한다는 것. 버젓이 전파를 타고 있는 이 광고는 흔히 '몰카'라 불리는 휴대폰 내장 디지털 카메라의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성능을 내세웠다.

비단 이 회사 뿐 아니라 여타 카메라폰 광고 역시 몰카 성능을 부각시키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유용민 간사는 “마음을 드는 이성을 찍을 수 있다는 주제 뒤에 가려진 초상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국내 카메라폰 시장은 등장 1년 만에 전체 휴대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다. 활용도 측면 또한 여러 가지로 늘고 있다. 폰카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기본 기능부터 이메일을 통한 PC 전송, 스틱카 사진으로 제작, 나아가 일반 카메라로 찍은 사진처럼 직접 인화도 가능하게 됐다.

물론 현재는 최신형이 30만 화소급 수준이지만 올해 말 100만 화소급 이상의 카메라폰이 출시될 예정이라, 사진의 질적인 문제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1인 미디어인 블로그 사이트에서 폰카 사진을 올리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면서 모바일과 블로그를 합성한 '모블로그'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와 함께 폰카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들도 그 수를 점차 늘리는 추세다. 또한 폰카는 뺑소니, 주차위반 등 범죄사고 등을 예방하는 감시 도구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폰카 열풍 뒤에는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 바로 몰카 사용 문제가 그것. 실제로 지하철, 공원,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 찍은 일반인들의 몰카 사진들이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무수히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고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개인 뿐 아니라 기업들도 폰카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폰카를 이용한 기업스파이가 등장하자 한 전자회사는 사내 카메라폰 반입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캠퍼스 내에도 폰카족이 늘면서 그 사용이 문제시되고 있다. 몰카는 물론 칠판에 적은 필기를 따르하지 않고 폰카로 찍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에서도 폰카의 무분별한 사용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영장, 스포츠 센터 등에서의 몰카 사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오스트리아, 일본의 경우 법적으로 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제작하는 카메라폰의 경우 촬영 시 소리나 빛이 나오도록 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제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도 제작비 증가로 인해 세계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카메라폰 수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제대로 시행될 지 의문이다.

또한 카메라폰 zoom 기능의 급속한 발달 역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요인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디지털 윤리의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제 마련도 별 효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용자들의 의식을 바로잡는 일이다. 하지만 비윤리적인 행동을 조장하는 환경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디지털 기술 앞에서 인간의 도덕성만을 탓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문화단신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멀티플 축제의 바다'라는 모토 아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개국 244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의 개막작으로는 일본 쿠로사와 키요시 감독의 '도플갱어'를, 폐막작은 박기형 감독의 '이카시야'를 상영할 예정이다.

영화제 기간동안 눈여겨 볼만한 부대 행사로는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PIFF 광장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영화인과의 만남'과 감독들의 '핸드 프린팅' 등이 있다.

한편 이번 영화제는 일반예매 첫날인 24일 하루동안 41.4%의 좌석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현재 대한극장·메가박스 코

엑스점 등에서 다음 달 1일까지 예매 가능하다.

지구댄스씨어터 공연

지구댄스씨어터 '10주년 기념공연'이 내일(30일) 문화예술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다. 지구댄스씨어터는 한성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현대 무용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무용단이다. 이번 공연은 △Cross △Close-to-Phobia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Cross는 인간관계 속 미묘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자아와의 고민 등을 표현한다. 또한 Close-to-Phobia는 광장공포증·밀실 공포증 등 현대사회에서 대두되는 비이성적이고 지속적인 두려움 등을 다룬다. 문의 760-4104

삶이 노래 전하는 행정학도들의 열린 음악회

노래 소모임 '열음' 오는 4일 정기공연 ... 관객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 마련

행정학과 내 노래 소모임 '열음'은 오는 4일 학생회관 5층 소극장에서 제3차 정기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풀이한 다양한 민중가요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학부 내 행사에 머물던 과거의 공연 형식에서 벗어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만큼 공연 내용 또한 일반 학생들도 쉽게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노래들이 공연의 주를 이룬다.

이와 관련해 '열음' 회장 백승익(행정2)군은 "관객과 호흡하기 위해 민중가요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일반 학생

들도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노래들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애환을 담은 민중가요를 소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서는 어려움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 밝은 분위기의 '새물' '한결같이' '바위처럼'을 노래한다.

그리고 특별공연에서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사계'에 맞춘 노래와 영상을, 소외계층의 고뇌를 표현하는 '포장마차' 전에서는 짙막한 형식의 극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통일의 꽃을 피우요'를 부르며 공연에 참여한 관객들에게 직접 꽃을 선사하는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공연을 진행하는 만큼, 그 흥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 또 하나의 학부행사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

문화일기

내 생애 최고의 ○○

노래 - 희망 넘치는 노랫말 가슴에 와닿아



이은정
문과대 윤리문화 2

수업을 마친 후, 쌀쌀해진 날씨에 몸을 움츠리며 학교 문을 나선다.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분명 나만 힘든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그래도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났음에 대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왠지 모를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노래 한 구절씩을 흥얼거린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내 삶에서 노래라는 건 결코 빠질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많은 시간동안 노래를 불렀고, 노래를 들었고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다. 그 수많은 노래 중에서 난 지금 민중가요를 부른다.

이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고 그렇기에 아직 내게 희망은 많다는 것, 내 삶을 조금씩 바꿔가듯이 언젠가는 이 세상도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나는 민중가요에서 깨닫게 된다.

요즘은 '노래하나 햇볕한줄'의 '험난함이 삶의 거름이 되어'라는 노래에 한창 빠져있다.

이 곡은 동아리 선배님들이 부르신 곡이기도 하고 멜로디가 좋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제목이 마음에 와닿았

던 곡이다.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나 잠시뿐/돌아서고 나면은 험난한 인생길/삶이 막막함으로 다가와 울적할 때/그런 그런 때마다 나는 더욱 소망한다/그것들이 내 삶의 거름이 되어 화사한 꽃밭을 일구어 낸다면/나중에 알찬 열매만 맺을 수만 있다면/자신의 존재가 험없이 팔랑거릴 때/그런 그런 때마다 나는 더욱 소망한다'

이 노래를 부를 때면 동아리 공연이나, 시험, 친구 등 여러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 돌아봤을 때에는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을 남기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과 내일 해야 할 일들까지도 숨 한 번 크게 쉬고 잘 해보리라는 왠지 모를 자신감을 갖게 만드나.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무릎장단을 치며 부르는 이 노래 역시 '멋지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잘 부른다는 것보다 노래부르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노래들이 희망을 주고, 여러 사람을 하나되게 해주기 때문에 나는 이 노래들을 사랑한다.



로 보인다.

학내 문화 행사가 '불황기'인 요즘, 작은 규모이지만, 우리 가슴에 뜨거운 열정과 큰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음악회를 만나보고 싶다면 행정학도들의 노래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은>

bob83@dongguk.edu

2004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특별전형 공고

■ 석·박사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경주)학과는 경주캠퍼스에 개설된 학과임.

| 계열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
| 인문사회계 |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본, 한문(경주), 중어중문, 사, 미술사, 철, 윤리문화, 교육, 유아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북한, 신문방송,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관광·호텔경영(경주), 식품자원, 경제, 지리 |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본, 중어중문, 사, 미술사, 철, 윤리문화, 교육, 유아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북한,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관광·호텔경영, 식품자원경제, 지리 |
| 자연과학계 |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수학교육, 농, 임, 생물, 기정, 조경(경주), 생명공학(경주) |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수학교육, 농, 임, 생물, 기정, 조경(경주) |
| 공학계 |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환경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시스템공, 전자기산(경주), 기계공, 안전공(경주), 정보통신공 |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환경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시스템공, 전자기산(경주), 기계공, 안전공(경주), 정보통신공 |
| 예체능계 | 연극영화, 미술, 체육 | 연극영화, 체육 |
| 의학계 | 한의(경주), 의(경주) | 한의(경주), 의(경주) |
| 학과간 협동과정 | 멀티미디어 (연극영화, 전자공, 컴퓨터공, 경영) | 전자시각매체 (경주: 경제, 국제통상, 정보산업) |

■ 국가지원 연구 프로젝트 사업 및 관련 학과

| 분야 | 지원기관 | 사업단(팀) 및 연구센터 | 선정(관련) 학과 | 특전 |
|------|---------|------------------------------|-------------|----------------------------------|
| 인문사회 | 교육인적자원부 |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 | 불교학과 | 장·단기해의 연구 및 학과별 선발 절차를 거쳐 장학금 지급 |
| | 학술진흥재단 | 한국어니키즘 100년 연구팀 | 윤리문화학과 |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
| | 학술진흥재단 | 조선불교통사 연구팀 | 선학과 | . |
| | 학술진흥재단 | 연행록 노정당사 연구팀 | 국문학과 | . |
| 자연계열 | 학술진흥재단 | 연행록 해제팀 | 국문학과 | . |
| | 학술진흥재단 | [철실록]에서의 한국학 자료 발굴, 수집 및 연구팀 | 철학과 | . |
| | 학술진흥재단 |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사회변화 연구팀 | 북한학과 | . |
| | 환경 연구 | 환경친화형 OX재로 개발팀 | 화학학과 | . |
| 공학계열 | 과학기술부 | 양자기반반도체 연구센터(SRC) | 물리반도체학과 | 참여 대학원생에게 소정의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
| | 과학기술부 | 멀리미디어통신기술 연구센터(ERC) | 전자공학과 |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
| | 산업자원부 | 산업용 공정제어밸브 표준화팀 | 기계공학과 |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
| | 중소기업청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경과대학 정보산업대학 | . |
| 의학계열 | 과학기술부 | 한의학 연구실 | 한의학과 | . |

- 모집 인원 : 각 학과별 약간 명
- ※ 본 대학원은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4학기내에 수료 가능함.
- ※ 석사과정 법, 경영, 화, 생물, 가정학과는 서울,경주캠퍼스 공동개설된 학과임.
- ※ 석·박사과정 공히 학부 및 석사과정 출신학과에 관계없이 전학과 응시가능 (한의, 의학, 간호학과는 동일 학과에 한하며, 다만 간호학과는 3년제 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지원 가능)
- ※ 연극영화학과 영화학 전공은 이론편임.

- 지원자격
- 1. 국내·외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04년 2월 취득예정자.
- 2.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일시 및 방법 : 2003. 10. 18(토) 10:00부터,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시험

- 전형일정
- 1. 원서교부 : 2003. 9. 26(금) ~ 10. 8(수),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guk.edu/gs)가. 교부장소 : 서울은 학술관 3층 대학원 교학부, 경주는 진흥관 1층 사회과학 대학원 교학부
- ※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gs)에서 원서를 다운(Down)받아 지원할 수 있음.
- 2. 원서접수 가. 인터넷 접수 : 2003. 9. 26(금) ~ 10. 7(화) 17:00시 까지 (www.uway.com) 나. 방문 접수 : 2003. 9. 30(화) ~ 10. 8(수) 17:00시 까지
- 3. 전형일자 : 2003. 10. 18(토)
- 4. 합격자 발표 : 2003. 10. 30(목) 14:00 예정 (각 대학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 www.dongguk.edu/gs 공고)

■ 제출서류 입학원서(사진 3매),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업계획서, 평가기초자료, 추천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초본, 승적확인서(조계종 재직 승려에 한함) ※ 인터넷 접수자는 입학원서, 학업계획서, 평가기초자료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그 외 서류는 전형 당일 구술시험 1시간 전에 진행위원장(조교)에게 제출한 후 수험표를 교부받기 바람.

- 기타
- 1. 외국인 입학생은 등록금의 50% 장학금 지급
- 2. 각종 교외장학, 조교장학(연구 및 행정조교), 총장장학, 고시장학, 공인회계사장학 등 다수가 있음.
- 3.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수에게 매학기 교육조교를 배정하고 있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참조 (www.dongguk.edu/gs)
- ※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TEL. 02-2260-3094~5, 3116 FAX. 02-2260-3685

2003학년도 교육여건 설문조사 기간연장 및 경품행사안내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의 교육여건에 대한 재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파악하여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대학의 교육정책에 참고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설문조사 연장 기간 : 2003. 10. 5(월)까지
2. 설문 내용 가. 학사제도 나. 교육과정 및 학업이수 다. 복지 및 행정서비스 라. 교육 및 지원시설 마. 대학발전 정책
3. 참여 방법 : 본교 홈페이지 우측하단 교육여건설문 클릭
4. 경품 행사 가. 경품지급 대상자 : 교육여건설문 온라인 조사 기간 중 모든 설문에 응답한 재학생 중 추첨을 통해 선발 나. 경품 당첨자 선발 방법 및 시상내역 (1) 명진상 : MP3 1개씩 3명 - 선발방법 : 설문 5개 영역에 모두 응답한 재학생 중 추첨을 통해 선발 (2) 해화상 : 문화상품권 1만원권 2매씩 101명 - 선발방법 : 설문 5개 영역에 모두 응답한 재학생 중 각각 1.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0번씩 응답한 학생 (3) 동국상 : 학교 홍보용 교급 우산 10명 - 선발방법 : 설문 5개 영역에 모두 응답한 재학생 중 추첨을 통해 선발 다. 당첨자 추첨 및 발표 (1) 당첨자 추첨 - 추첨일 : 2003. 10. 9(목)이전 - 추첨위원 : 교무처장, 학사지원실장 등 (2) 당첨자 발표 - 발표일 : 2003. 10. 16(목)이전 - 발표장소 : 학교 홈페이지

교무처

매체비평

연극 편

나는 인간이다

“호소력 약한 연출력
‘반전’ 외침 허공으로”



전쟁이야기를 다룬 연극 '나는 인간이다'.

‘나는 인간이다’는 극단 기린이 ‘작은 극장 개관 기념 레파토리 4’로 올린 연극이다. 운명도 필연도 아닌 인류의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지만 그려면서도 너무나 쉽게 잊혀지고 있는 우리의 과제인 바로 ‘전쟁’을 다룬 작품

으로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에 내던져진 한 병사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잔인함, 비인륜성, 죽음의 공포 등을 의식의 흐름이라는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었다.

‘전쟁’ 결코 쉽게 얘기할 수도, 가볍게 지나칠 수도 없는 무거운 주제이며 그렇다고 잠시 뒤로 미루어서도 안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 인류의 어느 누구도 전쟁의 위협과 위험에서 완전하게 안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인류 공통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작가는 우리에게 각성하길 바랐던 것일까. 그는 전쟁이 무섭다고 말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반전을 외치는 것이고 그 방법이 바로 ‘연극’이라고 한다.

관객은 연극이 재미있기를 기대하고 공연장을 찾아간다.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도 관객이 감동 받기를 기대하고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거운 것이든 가벼운 것이든 주제의 무게감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연극은 관객에게 재미있게 연극적으로 풀어냈느냐(연극이라는 형식으로 관객을 만나고자 했다)와 어떠한 관객을 만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소극장 가는 길에서 마주친, 포스터를 쓰레기더미 차에 붙여놓은 장면에서 비롯된 불쾌함을 억누르고 찾아간 공연의 연극적 문법이나 원리, 기술에 대한 논의는 뒤로 제쳐두고라도, 텅빈 무대에 이유없이 세워진 초라한 세트는 개연성 없는 배우들의 행동을 보여줬고, 철학적

이고 시적인 대사와 몇몇 상징적인 동작들 그리고 이와는 달리 너무나 일상적인 의상과 소품은 양식의 혼란과 부조화를 낳았으며, 이미 이야기의 전개와 주제의 전달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부연의 또 부연적인 장면들은 결국 관객에게 억지스러운 감정의 동요와 슬픔만을 강요하고 있었다.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사색은 연극을 보고 난 후 여유로 가지고 가는 관객의 몫이다. 배우의 연기가 철학적인 필요는 없는 것이다. 연극은 이와 같은 주제를 인물 상호간의 갈등과 극적 전개에 의지해 보다 재미있고 동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로 꾸며야 하는 것이다.

또한 희곡의 대사로 마치 소설처럼 수없이 많은 미사여구나 시적이고 낭만

적인 어구들로 꾸며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과오로 인해 ‘나는 인간이다’는 연극이 관객에게 행하는 가장 큰 폭력인 지루함을 낳았다.

연출가(작가)는 적어도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철학을 얘기하고 함께 나누기 위한 방법으로서 연극이란 예술을 택했다면 연극은 관객의 존재로서 창조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반전(反戰)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관객을 만나고 호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객의 존재부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송효숙
본교 교양강좌 ‘연극의 이해’ 강사

예술영화 날개달고

관객을 만나다

SCENE NO.

근간인 인프라 빈약해 제작부터 배급까지 어려움 여전 정부지원과 상업영화수익 재투자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국영화가 바야흐로 봄이다. 할리우드에 맞서 자국 영화가 영화시장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를 제외해 놓고 한국이 유일하다. 문제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그늘진 구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비평가들은 한국영화가 상업성을 강조한 나머지 영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성’에 소홀하고 ‘획일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작품성과 흥행이라는 두가지 화두는 모든 상업 예술이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예술을 강조하기보다 수익을 더 중시하는 대중문화의 속성 상 의미와 재미가 공존하는 작품을 생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는 영화 창작과정의 실험과 도전이 필요한, 따라서 그만큼 상상력과 노력이 더 소요되어 ‘남는 장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품성은 향상했지만...

다행히 상업영화가 외면한 영역을 예술 영화가 담당하면서 작품성과 실험성이 돋보이는 작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주류 상업영화가 다루지 못하는 일상사의 독특한 처리에서부터 성역으로 남아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도발적 견해와 역

사적 사건의 재해석까지 정치적 질은 주제가 독립영화의 주된 영역인 셈이다. 현재 매년 500편 이상 제작되는 예술영화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겉으로만 평가한다면 상업영화의 봄과 더불어 완벽한 조화를 이룬 듯 보인다. 뿐만 아니라 상업영화의 질적 수준도 이제는 ‘실험’ 단계를 벗어나 국제영화제에서 단골로 상을 받아올 정도로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제작시스템 여전히 불실

그러나 예술영화가 상업영화에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상업영화의 본격적인 대안으로 등장하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너무나 빈약하다. 누구나 보고 동의할 만큼 작품성이 뛰어나고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어도 이를 제대로 상영할 영화관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은 최근 ‘고양이를 부탁해’나 ‘영매’의 경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제 예술영화의 문제는 저예산의 자금마저 조달하기 힘든 제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더불어 잘 만든 영화를 상영할 수 없는 배급의 문제까지 안고 있는 셈이다. 매년 수 백편이 제작되는 예술영화를 KBS와 EBS 그리고 몇 안되는 예술 전용극장이 모두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

어서 예술영화의 배급체계를 개선,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문제는 상업영화에서 나타나는 제작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안적 가치를 담은 영화를 만들어, 극장 배급이 아닌 전국이 네트워크화 된 전용관에서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일이 절대 상업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공적인 가치관단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대안책 모색해야

그 하나의 예로 정부지원과 더불어 상업영화에서 남기는 이익의 일정 부분이 예술영화로 재투자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업영화가 예술영화를 교차지원 하는 이런 방법은 새로운 수법과 독창적 아이디어를 상업영화에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가치가 있다.

상업영화와 예술영화는 이렇듯 각자의 발전을 위해 서로가 필요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성공이 또 하나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생의 관계인 것이다. 예술영화가 더 많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인 것이다.

조종홍

예술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예술영화전용상영관 소개

“일반 극장과는 보는 물이 달라!”

전국 네트워크 ‘아트플러스’ 구축해 관객유치 노력

지난 2001년 저예산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라이방·나비·고양이를 부탁해’를 살리자는 ‘와라나고’ 운동이 진행됐다. 이 운동의 내용 중 하나가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들이 흥행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상영될 수 있는 ‘예술영화전용상영관’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성과로 정부는 지난해 초 전국 주요도시에서 10개 이상의 전용관 설립 및 연간 150억여원의 지원 방침을 밝혔다.

예술영화전용상영관은 예술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3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다. 이것의 설립은 현재 상업성만 강조하는 우리의 영화계 관객들의 불 권리를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반 영화관과의 차별성 또한 눈에 띈다. 그 예로 서울 동숭동에 위치한 ‘하이퍼텍 나다’의 경우 영화 시작 10분이 지나면 티켓이 있는 관객이라도 상영관 출입을 금하고, 영화의 엔딩크레디트가 모두 올라갈 때까지 상영관의 불을 켜지 않는다는 방침을 만들어 놓았다.

이는 관객들이 영화에 몰입하고 끝까지 감상할 수 있도록 관객을 최대한으로 배려한 전용관만의 장점이다.

그러나 아직 소수의 마니아들만 찾아 자체 수익만으로 운영하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그간 ‘영화를 제작해도 틀 곳이 없다’는 한국 예술영화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전용관 설립으로 개선 여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감독이 흥행을 보장받을 수 없는 예술영화 제작을 꺼린다.

이와 관련해 하이퍼텍 나다 영상사업팀 정유정 대리는 “예술영화 제작 및 홍보 등에 대한 안정



동숭아트센터 2층에 위치한 ‘하이퍼텍 나다’.

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관객유치가 가능하고, 이는 예술영화전용관이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얼마전 전국 12개 예술영화전용관이 ‘아트플러스’라는 네트워크 망을 구축해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예술영화의 공동 배급망을 마련·공동 마케팅·영화제 개최·프로그램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해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한 지난 5일 개봉후 지난 25일까지 9천여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며 단관상영영화사상 최고의 흥행작으로 떠오른 박기복 감독의 ‘영매-산 자와 죽은 자의 화해’의 성공은 한국 예술영화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제 예술영화가 소수 마니아들의 전유물이라는 틀을 벗어날려 하고 있다.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영화계의 흐름에 맞춰, 우리도 예술영화전용상영관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는 것은 어떨까.

<민>

mh705@dongguk.edu

눈여겨 볼 작품들

‘경계도시’ 상영회

‘진실의 힘-한국 다큐멘터리 걸작선’이 다음달 1일까지 예술영화전용관 씨어터2.0에서 진행된다. ‘이것은 사태지가 아니다(감독=전명산)’ ‘에바다 투쟁 6년-해 아래 모든 이들의 평등을 위하여’(감독=박종필) 등 총 9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지난 22일 37년 만에 귀국한 송두율 교수의 이야기를 영화한 한 ‘경계도시(감독=홍영숙)’는 많은 이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영화는 고교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송 교수의 그의 부인 정정희 여사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분단과 현대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 ‘경계도시’는 53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인터내셔널 포럼 부문 특별 상영작으로 선정됐고 베를린 개봉 당시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김기덕 감독의 신작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은 인간의 욕망과 업보, 그리고 삶의 윤회에 대해 그린다. 일생의 각 단계를 의미하는 사계절은 철없는 동자승이 중년이 되고 다시 동자승으로 나오는 과정과 맞물린다.

또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위해 다시 동자승으로 돌아오는 순환구조도 눈여겨 볼 만하다.

살생의 업을 저지르고 사랑을 하고 삶의 맛을 갖게 되고 평온을 찾기까지 주인공이 겪는 삶의 과정들은 복잡다단한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특별한 자극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호수 위에 자리잡은 암자와 수려한 자연 풍광이 전하는 감동도 커다란 흥미거리이다.

메아리

삼국지 예고편?

▲중국 한(漢)나라 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전국의 영웅들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떨쳐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조조는 큰 공을 세우며 결국 한 왕조에서 ‘승상’의 자리에 올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황제는 ‘허수아비’가 된다. 이는 누구나 한번쯤 읽어봤을 법한 소설 ‘삼국지’의 이야기다.

▲지난 26일 오전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찬성 과반

수 미달로 부결됐다.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무리한 편중적 인사가 빚은 필연적 결과”, “국회의 의견 존중해 감사원장 직무수행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기 바란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과연 국회는 윤 후보가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안을 부결한 것일까. 윤 후보는 지난 24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기존의

적발·문책위주 감사에서 성과평가 중심의 감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개방형 임용제 도입 등 다소 개혁적 의견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등은 “연륜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윤 후보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밝혀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이 부결되자 일부에선 이를 각 당이 감정적이고 정략적으로 표결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의 3당 공조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청문회에서 각 당은 인물에 대한 적절한 검증은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번 부결은 인물보다는 각 당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등 3당이 어떠한 의견에 뜻을 같이 한다면, 국회의 의견은 곧 그들의 뜻이 된다. 3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의

석의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소설 삼국지에서 결국 제후들은 ‘한’을 불신하고, 각각 자신의 나라를 세우 전국을 차지한다. 막강한 힘을 갖춘 3당 공조의 ‘책’이 보이는 국회, 이들이 만약 당리당략(黨利黨略)에 그들의 힘을 이용한다면, 국민들의 불신과 정치권의 혼란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진성 기획·사진부장
yearn@dongguk.edu